



정교회주보

제2425호

2023.6.18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소아시아 지역 미라에 있는 성 니콜라스 성당은 6세기에 최초로 세워졌고, 현재의 성당(사진)은 8세기에 건립되었다. 성당의 바닥은 유색 대리석 모자이크로 만들어졌으며 벽화 일부가 지금도 남아 있다. 성당은 현재 복원 공사 중이다. 2007년부터 튀르키예 정부는 수 세기 만에 처음으로 성당에서 성찬예배를 거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성 니콜라스 대주교가 4세기 초에 미라의 대주교였다.

마태오 제2주일
성 레온디오스, 테오도로스 순교자
(제1조 • 조과 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81
• 순교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로마 2,10~16 (봉) 124
• 복음경 : 마태오 4,18~23 108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미흡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이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다면, 또 하느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 하느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우리 자신보다 더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주님께 억지 부리지 말고 내 욕심만 채우려 하지 말고, 다만 순수하면서도 온유하게 기도드립니다.

하느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아시고, 그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며, 그분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삶과 말씀' 중에서

정교회 예배의 시작 기도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우리 교회에서 거행되는 거의 모든 예배는 성령께 바치는 기도 “하늘의 임금이지어~”로 시작합니다. 이 중요하고 위대한 기도문의 내용을 구절별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 이 명칭을 통해 성령의 위대함이 강조됩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하늘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는 아래 부분에서 언급됩니다.

‘임금이시여’ - 성령은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과 동일한 본질이시니 성부, 성자와 같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부 아버지가 임금이시니, 성령 역시 임금이 되십니다.

‘위로자시여’ - 위로자는 말 그대로 우리를 위로해주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머물지 않는 사람들은 슬픈 마음과 위로받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진리의 성령이지시여’ -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요한 16,13 참조), 우리가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항상 진리의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 항상 진실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현존하시며’ - 성령이 과연 어디에 거하시는지 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은 ‘어디에나 현존’하십니다. 예를 들면, 성찬예배가 거행되는 곳이면 동시에 어디든 성령이 계십니다.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어디에나 머무신다는 이 점은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의 유한한 마음과 생각에 다 들어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는 마치 끝없는

망망대해가 조개껍데기 하나에 다 담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온갖 것을 채워주시는 이여’ - 성령은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곳이라면,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안 계신다면,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성령 없이는 우리 마음이 결코 만족감과 충만함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복을 주시는 이여’ - 이 행복들은 무엇입니까? 성 사도 바울로가 성령의 열매를 열거할 때 언급한 모든 덕목입니다. 즉,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갈라디아 5,22-23)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여’ - 성령께서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시어 우리 안에 머무르시어’ -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좋지 못한 삶의 모습들로써 성령께서 떠나가게 하지 않는 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때에도 우리는 성령께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의 불결하게 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 이렇게 우리가 간청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룩함의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이여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 성령께서는 우리 존재의 조각난 부분 부분들을 모아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과 해방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거룩한 실망

A. 탐파키스 신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어느 날 나는 한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해가 지날 때마다 저는 친구가 줄어 듭니다.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리둥절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느님의 길에 들어선 것이란다.”라고 대답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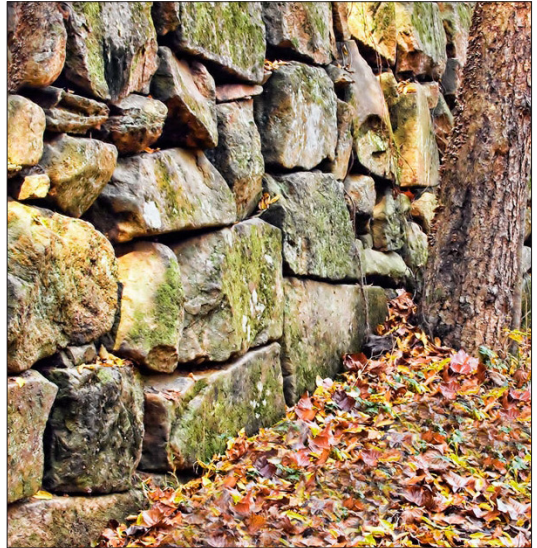
“하느님의 길이라니요? 그것은 어떤 길인가요?”라고 소녀는 물었습니다.

“너는 ‘거룩한 실망’으로 이끄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란다.” 이것이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때때로 모든 것이 너를 저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너의 사랑, 너의 꿈, 너의 나라, 너의 친구, 너의 기쁨, 네가 지닌 돈, 너의 건강, 너의 희망, 모든 인간적인 확실성, 삶 자체, 너의 과거와 미래 등등...”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소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달콤한 사랑이 너를 껴안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다. 만일 사람들이 너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혹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너는 바른 길 위에 있단다.”



누가 야수를 온순하게 만들 수 있는가?

성 이삭 시리아인, 5세기

아무도 겸손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꾸짖거나 업신여길 수 없다.

그리스도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한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은 그와 함께 있길 원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교사들도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며, 모든 사람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겸손한 사람은 단순하게 말하며, 그의 말은 꿀보다도 더 달다.

비록 겸손한 사람이 못 배우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를 거룩하게 여긴다.

겸손한 사람을 얹잡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당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야수들조차도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얄밟해지는데, 이는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기 때문이다.

주간 예배 안내

※ 6월 24일(토)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공사
주차장과 지하 식당 사이 통로에 나무 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며칠간 많은 수고를 해주신 서울 성당의 안드레아 김덕성, 그레고리오스 박노양, 미하일 박인현 교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식

■ 소티리오스 대주교 1주기 추도 예배

지난 10일(토), 소티리오스 대주교 1주기 추도 예배가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뉴질랜드의 미론 대주교, 우리 대교구 사제 7명이 공동 집전한 성찬예배와 추도식에는 많은 신자들을 비롯하여 고인의 조카 엘레니 트람바 교우가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묘소 앞에서 간략한 추도 기도식 후에 다같이 점심식사를 나누고, 1주기 기념 소책자를 배부받았습니다.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영혼의 안식을 기원하며, 우리 모두가 그분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 뉴질랜드의 미론 대주교 방한

소티리오스 대주교 추도 예배를 위해 방한했던 뉴질랜드의 미론 대주교는 지난 주일(11일)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성찬예배를 공동 집전했습니다. 예배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환영사와 미론 대주교의 답사가 있었고, 점심식사 때 미론 대주교는 ‘모든 성인들의 주일’을 기념하여 거룩함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이어서 신데즈모스와의 만남에서는 뉴질랜드 대교구가 남태평양 섬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교활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참고 인내하면...

성인의 가르침

시리아의 에프렐 성인이 가르치신다.

“형제여, 그대가 몸이 아플 때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약이나 양식을 보내달라고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대는 인간의 보호, 달리 말해 ‘죽은 도움’에 점차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하느님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분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께서 그대를 다스리실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대 영혼의 유익을 위해 아픈 것을 그분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 그대를 위한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서가 기록한 대로 하느님께서서는 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보다 더 큰 시련을 겪게끔 허락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를 보살피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